

아듀 2016~ '다사다난'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정도였던 2016년 병신년(丙申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8일 오후 하늘에는 마치 모든 것을 태운 듯한 붉은 태양이 서산으로 지고 있다. 한해 끝자락에서 바라본 저 붉은 태양이 지금의 모든 액운을 태워내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한숨'보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경북노인복지협회 '금품로비설' 파문...도의회 조사 착수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  
도의회 상임위 상대로  
금품로비 벌었다는 의혹

경북도의 201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 상임위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해당 상임 위원회 관계자는 201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제 관련 단체의 로비가 있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금품로비설이 사실

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경북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000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로 넘겨져 통과됐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당시 예결위는 삭감 문제를 놓고 위원들간 첨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위원 10명이 투표

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반대 7명, 찬성 1명, 기권 2명으로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시설 관계자가 행복위 및 예결위를 상대로 '개인시설에 편성된 인건비를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항간에 떠돌았다. 노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경북도 20%, 해당 시군이 80%를 부담한다. 따라서 경북도 예산이 삭감될 경우 시군에서도 지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경북노인복지협회 한 관계자는

"금품로비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황당할 뿐이다"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경북도의회 행복위를 방문해 유인물을 드리며,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삭감을 건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개인시설에 주는 것은 반대"라며, "행복위원장을 만나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된 이후에 쥐고 늦지 않으니 그 때까지 개인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늦춰달라'고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29일 기자회견회를 갖고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지난 17일 이런 소문을 듣고 사실확인 나섰다"며, "28일 오후 행복위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단체로부터 로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각 상임위로부터 금품로비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오전에 윤리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 윤리위의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음침마속의 심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기자

## 수능 치른 딸 아버지에 간 기증 "행복합니다"

고교 3학년 재학중 장은소 양  
수능 준비 중 아버지 장성기 씨  
간경화 악화되자 간 기증 결심



"사랑하는 아버지께 제 몸의 일부를 드릴 수 있어 오히려 행복합니다" 29일 계명대 동산병원에 따르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자마자 아버지를 위해 간 일부를 기증해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장은소(18) 양으로, 그는 수능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 장성기(48) 씨의 간경화가 악화되자 간

기증을 결심했다. 장은소는 수능시험 전 미리 간기증 적합확인 절차를 마치고 대학수능을 치른 후 지난 2일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했다. B형간염 보균자였던 아버지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돼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 증상이 악화, 간부전에 이르렀고 급히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간담체외과 강규정·김태석 교수와 이식혈관외과 김형태 교수는 11시간에 걸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딸은 지난 16일, 아버지는 29일 각각 퇴원했다. "수술 후 눈을 뜨자마자 제 몸마다 딸 걱정부터 앞섰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아버를 위해 간을 때 준 딸이 안쓰러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장 씨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연신 눈물을 흘렸다. 장 양은 평소에도 바르고 곧은 성품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밝고 따뜻한 아이라고 말했다.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며, 현재 대학교 입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장 씨는 "1.8kg으로 작게 태어난 딸이지만 누구보다 큰 용기와 사랑을 가진 딸이 자랑스럽다"며, "딸과 함께 새해에 더욱 건강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퇴원후 딸과 여행을 하고 싶다"는 장씨는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끝까지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최유희 기자

## 대구·경북지역 건설업 찬바람 분다

올해 11월중 대구 경북  
지역 건설수주액 급감  
대구 전년 대비 87.9%,  
경북 전년 대비 79.4% 감소

올해 11월중 대구와 경북지역 건설수주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대구·경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설수주액은 576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7.9%, 경북지역은 28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9.4% 각각 감소했다. 주요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

액 11조9403억 원 중 대구지역은 576억 원(전국대비 0.5%)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상·하수도, 공장·창고, 학교·병원, 관공서, 연구소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2.7% 감소, 민간부문은 재건축주택, 공장·창고, 기타건축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9.9% 감소했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부문은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공장·창고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90.1% 감소, 토목부문에서는 상·하수도, 철도·궤도, 조경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했다. 주요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

액 11조9403억 원 중 경북지역은 288억(전국대비 2.4%)으로 파악됐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철도·궤도, 사무실, 점포, 오락, 숙박시설, 도로·교량, 학교·병원, 관공서, 연구소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9.6%, 민간부문은 신규주택, 기계설치, 기타건축, 발전·송전, 육외 전기, 통신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73.6% 각각 감소했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부문은 기타건축, 신규주택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75.0%, 토목부문은 도로·교량, 기계설치, 기타토목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7.3% 각각 감소했다. 김진희 기자

## 티웨이항공, 대구공항 이용객 증가 '한뿔 특특'

티웨이항공 대구-상하이 노선  
운항시작 전 2014년보다 2.5배

티웨이항공이 올해 다양한 국제선을 취항함에 따라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에 한 뿔을 특특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출발하는 상하이 노선을 시작으로 올 5월 타이베이, 9월 후쿠오카와 도쿄, 10월 대양주인 괌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티웨이항공은 이달부터 국적 항공사 최초이자 단독 노선인 홍콩과 세부의 노선까지 열었다. 이 성과는 티웨이항공이 올해 들어 새롭게 취항한 11개 노선 중 절반에 달한다. 이 같이 티웨이항공이 공격적인 국제선 취항을 늘린 결과 잠깐 침체기에 시달리던 대구국제공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올해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편수는 티웨이항공이 대구-상하이 노선 운항을 시작하기 전인 2014년보다 2.5배 넘게 늘었다. 국제선이 늘어난 만큼 국제선을 이용한 여



객 수는 2014년 22만2734명에서 올해(11월 기준)60만307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54%인 32만6196명은 티웨이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일만 기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인본진흥재단

# 특검, 현판식 8일만에 구속영장...

## 문형표 첫 제물 되나

28일 새벽 조사 중 긴급체포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소환 조사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9일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진행한 특검팀이 8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문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

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국민연계에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은 국민연계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종용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국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은 국민연계가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문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다 28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최순실(60·구속기소)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

# 새누리, '인명진 비대위원장' 만장일치 추인

## 인적청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새누리당이 29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박수를 통한 만장일치로 인

위원장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 위원장에 대해 "쓰러져가는 보수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하도록, 좌파가 이 나라를 잘못 끌고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인생을 건 엄청난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 윤리위원장으로 보수정당의 도덕성과 책임정치를 확립하는데 앞장섰던 분"이라며, "평생 보여준 강한 소신과 끈은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우리 당을 혁명적으로 혁신해 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혁명적 수준의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인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깜짝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인적청산에 저항하는 친박계와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뉴시스



# 인명진 "새누리가 죽어야 보수가 산다"...비대위원장 취임 일성

"신당 만들어 책임회파·국민들 품수에 속지 않을 것"  
"보수 개혁돼야 진보도 개혁...정치개혁 밀알되겠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29일 "새누리당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받은 직후 인사말을 통해 "보수가 바로 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듯이 새누리당은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실정과 국회 탄핵, 이로 인한 국정 혼란, 쏟아지는 국민의 질타와 분노, 최악의 정당 지지율, 보수 정당의 분당과 원내 2당으로의 전락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오늘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저마다 살기 힘들다고 정탄식이고 한치도 내다보지 힘든 미래에 한

없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의 1차적 책임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숨김없는 민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변명없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요체는 책임이고 보수의 중요한 가치도 책임이다. 개혁의 시작은 과거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탈당파를 의식한 듯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저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잊겠지, 그런 얕은 수로 과거에 대한 책임을 피해 나가선 안된다"며, "흔히 과거에 당 이름이나 로고를 바꾸고 지도부 몇사람 얼굴을 바꾸고 심지어 새로운 당을 만들어 (책임을) 피해보려고 해왔는데 더 이상 알팍한 품수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새누리당이 져야할 책임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당에 남아 있든지, 이 당

을 떠났든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똑같이 책임이 생겼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어떤 비난이든 저게 받게 받겠다"고 했다.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자. 분열과 불안은 개혁을 가로막는 우리의 적"이라며, "여러분의 애당심과 애국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저는 어떤 정치적 욕심도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사람일지 모른다"며, "쇄신과 변화,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가지 원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가 개혁돼야 진보도 개혁될 수 있다"며, "여당이 개혁돼야 야당도 개혁될 수 있다. 그래야 '이게 나라냐'는 (비판을 받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제가 하려는 새누리당의 개혁이 우리나라 보수는 물론, 진보와 정치 개혁의 밀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여야 4당 원내대표, 내일 첫 회동

임시국회 소집여부·국조특위 연장 등 논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첫 회동을 열고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등 당면한 현안을 논의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

회 귀빈식당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당선에 따라 이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4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더불어, 정쟁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연장 문제나 개헌특위 구성 등 당면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서청원-최경환 '백의중군' 한목소리...인명진 칼날 피하기

새누리당이 29일 전국위를 통해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가운데,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과 망명 서청원 의원이 한 목소리로 '백의중군'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인 위원장의 '인적청산' 칼날을 피하기 위해 몸을 바짝 낮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인 위원장이 추대가 돼서 당이 새로운 개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도 "지난번 2선 후퇴와 백의중군하겠다고 했으니 많은 고뇌를 하고 있다"며, "인 목사는 개혁의 아이콘일 것이다. 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탈당설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얘기"라며, "정치인이 백의중군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부인했다. 뉴시스

# 31일 제야의 촛불집회 '송박영신'...1000만 돌파할까

주말 10차 촛불·집회·콘서트·행진 후 타종식 합류 시나위의 신대철, 들국화의 전인권 등 공연 출연 9차까지 연인원 895만명... 1000만 돌파 임박 '탄핵 반대' 우익단체는 오후 2시부터 대한문 앞 집회



2016년 마지막 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동자 대화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송박영신'(送朴迎新·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송년사를 통해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에 옮겨올은 따뜻했다"며, "우리는 많은 일을 해냈다.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해엔 권력이 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길 바란다. 우리의 끝까지 않은 겨울이 어느 때와 다른 봄을 가져오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따르면 31일 행사는 오후 5시 30분 시민자유발언대로 시작된다. 이어 오후 7시 본집회, 오후 8시 '송박영신 콘서트'가 진행된다. 본집회에는 뮤지컬 화순팀의 공연과 레이저 글씨 소동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두달 여간 진행된 촛불집회를 돌아보는 영상도 상영된다.

송박영신 콘서트에는 "친박단체는 '아름다운 강산'을 부를 자격 없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나를 섭외하라"고 발언해 화제가 된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씨가 공연할 예정이다. 신씨는 '아름다운 강산'의 원작자 신중현씨의 아들이다. 밴드 들국화 출신 가수 전인권씨도 합류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탄 발언도 진행된다.

오후 9시30분부터 효자치안센터, 126맨션 앞 등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현재) 인근으로 행진한다. 지난 24일 주말 9차 촛불집회에서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의 선제 집회 신고로 퇴진행동에 행진이 불허된 안국역 4번 출구 앞 행진도 재신청했다. 연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만큼 종로와 명동 일대 행진코스도 추가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방침이다. 이후 11시께 보신각에 모여 제야의 타종식에 합류한다. 퇴진행동은 애초 시민대표 33인을 선정한 별도의 타종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었지만 서울시 타종식 33인에 세월호 유가족, 촛불집회 쓰레기봉투 기부자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 측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각지에서도 함께한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31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지역에서 지역별 촛불집회를 계획 중이다. 강릉에선 '송박영신' 해돋이 행사도 진행된다.

10주째 이어지는 촛불집회인 만큼 마지막 날 연인원 1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29일부터 9차례에 걸쳐 계속된 주말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연인원 전국 895만명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날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 주말 열린 주말 6차 촛불집회(전국 232만명)였다.

퇴진행동 측은 이날 촛불집회 인원을 보신각 타종 행사 합류 전 행진 참가자까지 집계할 계획이다.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송박영신 콘서트가 끝나는 시점 전후로 최종 집계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1000만명을 돌파하면 퍼포먼스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촛불집회 외에 연말연시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퇴진행동은 다음달 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새해 새나라, 소원 3개를 말해봐'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접수한다. 퇴진행동은 또 2017년 1월을 '국민 대토론의 달'로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토론의 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가정, 직장, 친구·동료·지인들과의 만남 등 생활 속에서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할 대한민국에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보자는 취지다. 시민들은 곳곳에서 토론한 결과를 누리집 국민토크(www.citizen2017.net)에 게시하면 된다. 퇴진행동은 이를 전문가들과 함께 100대 촛불의 요구로 분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요구들을 제도권에 소개하거나 과제로 삼고 활동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제 드러나...조운선 즉각 사퇴"



## 검은 비닐봉지 뜯는 퍼포먼스로 저항 의미 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조운선 문화체육부장관 등의 사퇴와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언론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서와 파일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사회 문제에 관여했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이유와 함께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 91개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도 자신이 실제 블랙리스트를 봤고 작성 과정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깊이 개입됐음을 폭로했다"고 강조했다.

퇴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이들의 강제 사퇴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불과 며칠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며, "하지만 특검의 압수수색 전 직무실의 본인 컴퓨터 교체를 지시하고 문화부 예술정책과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특정 예술인들을 관리하고 배제했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이 사라지고 사적 이권에 따라 난도질당한 공공 자금 배분 정책의 문제이자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조차도 무시한 채 국정을 농단한 불법 정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상태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후 비닐봉지를 찢으며, 블랙리스트를 지정 및 관리한 이들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뉴시스

# 내년도 대구시 실내공기질 대폭 개선

### 모든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등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

모든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 등 '유지 기준' 항목은 연 1회, 라돈·석면·오존·이산화질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권고 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달리 소유자 등이 직접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실시하는 자가측정은 그 결과를 참고해 스스로 시설 개선하는 등 기존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

하지만,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연 1회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한 측정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측정 시기가 연말에 집중돼 측정을 하지 못하거나 대행업자의 부실측정이 우려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하반기 측정 대상이며 그 외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별로 측정시기를 구분해 측정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 결과 보고도 종전에는 시설 소유자 등이 매년 1회 서면으로 하던 것을 자가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공조 필터 세척작업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여은 기자**

## 정부3.0 실적 평가서 대구시 우수지자체 선정

###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 교부 받아

대구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정부3.0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한 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3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이뤄졌다.

대구시는 4개 평가항목(정부3.0 추진역량·서비스정부·유능한 정부·투명한 정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주요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정부3.0 추진 역

량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정부3.0 학습·추진 체계인 '정부3.0 네트워크 포럼' 운영과 시민 설명회 개최, 동대구역 알림관 설치, 정부3.0 전 분야 릴레이 교육 등이 눈에 띈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는 폐자원수집 아르신의 심야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디바 프로젝트',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애로119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의 무료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D-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수요데이터인 관광관련 정보를 적극 개방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창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조일래 기자**

## 대구시 "2018년까지 석면 없는 도서관 만들 것"

### 도서관 석면 제거 사업 본격 추진

WHO(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대구의 노후화 된 시립공공도서관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2018년까지 완전한 제거에 나선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책읽는 도시 대구' 조성을 목표로 노후화 된 시립공공도서관의 석면 제거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지 20~3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시립도서관을 우선으로 오는 2018년까

지 전면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31억 원을 투입해 대구시립남부도서관과 동부도서관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제거, 냉난방기 교체 작업, LED 조명 교체 공사, 동부도서관 지붕타일 파손 교체 공사, 소방·통신시설 보수 공사 등을 진행했다.

동부도서관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재개관했으며 남부도서관은 내년 1월 2일 재개관 예정이다.

대구시는 내년도에도 두류와 서부도서관에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석면제거 등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일래 기자**

## 대구 사상 첫 여성 부구청장 탄생

###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본청 임영숙 자치행정과장 동구 부구청장에 임명 등



대구시는 여성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임명하는 등 조직개편과 공모연수·명예퇴직 등에 따른 '201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9일 발표된 이번 간부인사는 성과와 전문성에 근거해 민선6기 후반기의 조직안정과 업무추진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국장급 7명과 과장급 48명을 발령했다.

섬세하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구·군과의 원활한 소통·지원과 마을공동체사업, 정책제안 등 민·관 협력의 자치시정 활성화에 기여한 임영숙(9급공채·57) 자치행정과장이 동구 부구청장으로 승진 발령돼 대구 첫 여성 부단체장이 됐다.

또한 내·외부 폭넓은 소통·친화력과 조직 활력에 강점을 가진 최희송(9급공채·57) 대변인이 시민행복교육국장으로 전보돼 역동적인 청년도시 대구 건설의 중책을 맡게 된다.

아울러 기획팀장과 서울사무소장의 업무경험과 경제·산업 현안에도 밝은 김형일(지방보

시 3기·48) 부이사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발탁했으며 교통기획팀장, 문화예술정책과장, 감사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홍성주(지방보시 1기·49) 정책기획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복지기획팀장과 복지정책관 등을 거처며 공직생활의 절반을 복지업무에 전념해 복지통로로 잘 알려진 정남수(9급공채·57) 부이사관이 보건복지국장에 보임됐으며 강점문 시민행복교육국장과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1년간 국내 장기교육을 갈 예정이다.

과장급 인사는 공모연수·명예퇴직·과건과 함께 민생경제과·도시정비과 신설 등에 따른 공석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의 균형 배치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사무관 20명을 과장급(승진 14명·직무대리 6명)으로 발탁했다.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도 전기·녹지·수·토목·건축 등 소수 기술직렬을 골고루 발탁해 전문성을 갖춰 열심히 일하고 직무에 충실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사원칙을 준수했다.

특히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특유의 소통능력과 강단있는 일처리가 돋보이는 강명숙(9급공채·54) 사무관을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로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야시장 조성으로 서문시장을 전국명소로 성장시킨 정기영(9급공채, 57) 사무관을 신설 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로 발탁하고 과장급인 대변인에는 관련 업무에 정통한 진광식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보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사 폭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적성과 역량, 사업·지원부서, 여성공무원 등 균형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5급이하 팀장과 주무관 인사로 1월 설 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주형 기자**

### 인사

#### □ 대구시

- ◇3급 국장급(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형일 △시민행복교육국 최희송 △자치행정국 인사과 강점문·김영애 △보건복지국장 정남수 △건설교통국 홍성주
- ◇4급 과장급(승진) △공공추진본부 공공화이전과장 권영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김은 △창조경제본부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미래산업추진본부 스마트시티조성과장 조옥재 △보건복지국 식품관리과장 황윤순 △도시재정조국 토지정보과장 권오중 △건설본부 건축기전부장 이도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주양 △수목원관리 사무소장 장정걸 △건설교통국 택시물류과장 정철북 △홍보담당관 차혁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형동 △건설교통국 버스운영과장 성임택 △여성회관장 변수옥
- ◇직무대리(4급) △평가담당관 신정섭 △민생사범경찰과장 설건수 △민생경제과장 정기영 △장애인복지과장 강명숙 △도시정비과장 백승태 △도시철도 건설본부 기전부장 박정환
- ◇전보(4급) △대변인 진광식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관 심재균 △시민행복교육국 행복민원과장 김성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진식 △자치행정국 인사과 윤금동·백동현·김용일·박운상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윤정희 △공무원교육원장 서환중 △건설교통국 건설산업과장 이배연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이원재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서오섭·김문호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김인연 △중합복지회관장 박주국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기
- ◇전임(4급)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장 박찬보
- ◇전출(4급) △동구구청 임영숙·안희열 △서구청 이춘우
- ◇파견 △의료허브조성과(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주홍 △정책기획관(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 이응규
- ◇경력경쟁임용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조동두 △창조경제본부 경제정책과장 성용경
- △의원면직 △외교부 서경현

## 대구지역 도시환경 개선 평가, 최우수 '남구'



남대구초등학교 개선 전(곡각)



남대구초등학교 개선 후(곡각)

### 우수 '수성구', 장려 '북구' 선정

대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시행한 '도시환경개선 업무 구·군 평가' 결과 최우수에 남구, 우수에 수성구, 장려에 북구가 선정됐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구·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선진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추진한 각종 도시경관사업, 광고물 정비, 야간경관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남구는 관문도로 경관개선과 주민 생활권 주변의 환경 개선 실적 등이 우수하며 기존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사후 유지·보수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올해 '대명동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

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수상하는 등 타 구·군에 귀감이 됐다.

수성구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시정비 업무를 추진했으며 각종 경관사업을 신규로 발굴·시행함으로써 깨끗한 도시경관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구는 관공서 주도의 경관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깨달마(깨끗하고 밝은 마을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환경 개선, 폐기물수거용 바닥그림 설치 등 아름다운 도시 대구 만들기의 원동력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선정된 3개 기관에 대해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보조금 남구 5000만 원, 수성구 3000만 원, 북구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 대구공항 통합 이전, 대구·경북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대구·경북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대구·경북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대구·경북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 지역발전 계기 마련

- 대규모 건설공사
- 대구·경북 거점공항 확보
- 교통인프라 확충
- 1만여명 인구 유입 요인
- 3천억원 지원사업

### 경제적 파급효과

- 12조 9천억원 생산유발
- 5조 5천억원 부가가치유발
- 12만명 취업유발
- 지역소비 활성화
- 관련산업 유치 가능

# 안동찜닭골목, AI 직격탄 '매출 반토막'

### 30여 찜닭가게 손님 4-5명뿐인 곳 대부분



29일 낮 12시 '찜닭'으로 유명한 안동시 구시장 내 찜닭골목. 전국 각지에서 '원조 찜닭'을 맛보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되었던 골목이 한산하기만 했다.

30여 개 찜닭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 4-5명뿐인 곳이 대부분이고 주인과 종업원만 할일 없이 앉아 있는 곳도 많이 있었다. 가게들 가운데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졌던 곳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주춤하더니 AI 사태까지 터져 앞전 데 닳친 격이 됐다"고 했다. 또 "거의 한달간 매출이 반토막 난 업소가 대부분이고, 손실이 심한 곳은 60-70%가량 매출이 줄었다"고 귀띔했다. 김준년 찜닭 사장(46)은 "최악의 AI 사태"라는 말이 실감난다. 주말이면 하루평균 80-90마리 정도 팔리던 찜닭이 지난 주말 이를 동안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안동 찜닭골목 가게가 유명 음식 프로그램에 방영돼 인기가 오르던 참이었는데, AI 때문에 다 글렀다"고 토로했다. 또 "오리나 산란계 등은 AI에 취약하지만 찜닭 재료인 육계는 감염 가능성이 낮아데다 익혀서 식탁에 나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안동찜닭 골목은 지난 28일부터 코레일 여행 프로그램인 '내일로' 관광객들이 안동 찜닭 골목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였다. 안동찜닭은 섬세 400도의 불에서 10여분간 쪄고 진간장으로 간을 한 뒤 당근, 감자, 양파를 넣고 푹 익힌 음식이다. 국물이 짭뽕거리면 시금치, 대파, 당면 등을 넣고 한번 더 익혀냄으로써 매콤한 맛과 달콤하면서도 간간한 맛이 일품이어서 지역 대표 음식으로 유명하다. 김용구 기자

# 포항 새누리당 당원 1500명 탈당... "당비 돌려달라"



### 29일 포항시청서 기자회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텃밭으로 불리는 포항지역에서 당원 1500명이 탈당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전 포항시

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모성은 후보와 당원들은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 체제 하에서 국가 헌법이 유린됐고 특정 세력의 사익만 추구해 존재 가치를 잃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새누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당원 1500명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년간 납부한 당비 1인당 2000만 원, 총 3600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한 뒤 "당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을 탈당한 포항지역 당원들은 개혁보수신당에 입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훈 기자

# 서문시장 대체부지 유력 후보 '베네시움' 소유자 파악 나서

###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 절차 마무리 위한 작업 시작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화재 피해 상인들이 대체상가로 원하고 있는 '베네시움'의 소유자 파악에 나섰다. 중구재난대책본부가 베네시움 소유자 파악에 나선 것은 서문시장4지구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승인 등 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대체 부지 활용을 위해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

은 '베네시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운영위는 △시설 점검과 보수 △관리단 구성 △입대차 조건 등을 소유자들과 협의하게 된다. 피해 상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우선 베네시움 소유자인 '임시관리단집회(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베네시움의 소유자는 716명으로 '임시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한 최소 소집인원 150명(구분 소유자의 20%)은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총회에서 '베네시움 운영위원회' 승인 등의 안전을 상정·의결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인 359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구재난대책본부 측은 "구분소유자들의 주소지로 총회 개최를 알리는 우편을 발송해도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반송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화재 피해 상인들이 조속한 대체상가 입점과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분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임대차계약, 총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경제과나 서문시장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갇히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문] 신형산업진흥감독위원회

불법도박은 이용지도 함께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불법 시행행위를 신고(☎1855-0112)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구시, 고병원성 AI 확산 방어 안간힘

### 소규모 가금류 농가 전량수매 결정... 해맞이 행사 취소



대구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가운데 대구시 등이 소규모 가금류 농가에 대한 전량수매를 결정하고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다. 2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 동구 신서동에서 발견된 큰고니 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때문에 시는 확산방지차원에서 농가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인 닭과 오리 등에 대한 전량수매를 결정했다. 우선적으로 시는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349농가(6567마리)에 대한 긴급 수매비용으로 2억 원을 확보해 각 구·군에 배정한다. 소규모 사육농가 중 100마리 미만의 가금류 사육 농가와 방역수준이 낮아 AI발생 위험

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선제적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큰고니 사체가 발견된 10km 내외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건 상태다. 닭은 7일, 오리는 14일 이후 분변 또는 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AI 감염여부를 확인한 뒤 이 같은 제한을 해지할 예정이다. 동구 역시 야생조류 이동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구 등은 AI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큰고니 주요 서식지인 금호강(경산 하양-대구 동구)과 낙동강(해평습지 일원)에 고구마, 벼, 결보리를 160kg씩을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 야생조류 이동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큰고니 사체 발견지역에는 AI 전용소독과 연막소독을 하고, 금호강의 제방 진입로를 차단한 뒤 통제초소를 설치한 상태다. 습지 우회도로와 금강동 진입로에는 소독부지포를 깔아 이동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이번만 아니라 AI의 여파로 해맞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동구는 매년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남구와 수성구 역시 올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금호강 동구 신서동 주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가운데 인근 농가로 AI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 승강기 안전 특별 점검, 위반사례 3건 적발

### 대구시, 승강기안전공단 구·군 합동 실태 점검 실시

대구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도 강한 행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유지관리업체의 내실있는 점검을 유도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구·군과 합동으로 1일부터 20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2개소에 대한 4분기 실태 점검을 시행한 결과 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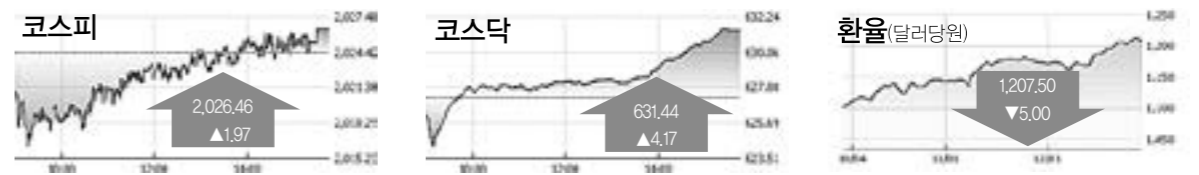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자체점검 현장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대구시의 아파트와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타 지역 업체 4군데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시행해 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올해 관내에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38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했으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자체점검 허위 작성,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례 32건을 적발했다. 조여은 기자

# 달서구 호산동 부품공장서 火... 4000만 원 피해

### 14분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어



29일 오전 5시 13분께 대구 달서구 호산동의 한 기계부품공장에서 불이나 14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내부의 공작기계 등이 불에 타 4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강서소방서는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36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영우 기자



# 대구시설공단, 내년부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처우 개선·고용안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설공단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9일 대구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고객관리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평가 등 심의과정을 거쳐 공단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내년 상반기 2년 이상 근무예정인 주차관리원, 나드리콜운전원 등 기간제 근로자 직원 94명을 정규직인 고객관리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구시설공단 비정규직들은 정년이 보장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기간제법상 전환 제외 대상

이었던 수영강사, 승마교관 등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 체육지도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했다.

이번에 고객관리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은 정년보장(60세) 이외에 급식비·교통비 인상(각 7만 원), 호봉제 적용 및 평가급 지급의 혜택이 주어진다.

2년 미만 근로자와 근무성적 평정 불량 등으로 고객관리직 전환 제외 대상인 경우 내년에도 고객관리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호경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 대박 상품으로 소비심리 자극한다

## 대구지역 롯데百貨, 2017 새해 첫 정기 세일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 영플라자 대구점은 내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총 21일간 2017년도 첫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까지 겹쳐 경기 불황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년 대박 상품전’, ‘명작 스페셜 상품전’, ‘럭키 스페셜 기프트’ 등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 행사도 마련했다.

먼저 대구점은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각종 본 매장 및 행사장에서 ‘신년 대박 상품전’을 열고 유명브랜드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4일간의 대박 찬스를 진행한다. 여성패션 유명 브랜드 울리치, 보보, 우단모피, 비즈트인뉴욕, 케네스레이디 등이 참여, 울리치 럭셔리 아티파카 111만3000원, 우단모피 블랙그라마 휘메일 재킷 390만 원, 빈플레이디스 하이백 퍼 장식다운 60만1300원, 케네스레이디 코트 17만4000원, 라코퍼 코트 32만4000원 등에 선보인다.

대구점은 남성패션 유명 브랜드의 인기 상품도 선별해 레노마 넥타이 3만5000원, ANDZ BY 지오지아 캐시미어 혼방 코트 29만9000원, 썬스나이트레드 백팩 9만9000원에 판매하고 나이키 러닝화 5만9500원, 노스페이스 화이트트래클 다운점퍼 25만9000원, 닥스 키즈 책가방세트 20만 원, 블랙야크키즈 리츠

다운 재킷 17만2000원 등에 선보인다.

또한 대구점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단 3일간 매일 매일 구성 상품이 달라지는 ‘럭키 스페셜 기프트전’을 열고 일별로 올리타리아 오일세트와 인기 식자재 혼합세트, 비비안 기모타이즈 2개 세트 등을 1만 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세계 정치 질서에 나라 안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해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신년 대박 상품전’, ‘럭키 스페셜 기프트’ 등 다양한 상품군을 아울러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는 특별 기획전 마련에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이상하 기자

# 대구TP,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에 이재훈씨 선임



대구 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는 공석중인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에 이재훈(44·사진)씨를 최종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재훈 센터장은 영남대학교에서 학사(전자공학), 경북대학교에서 석사(경영학) 과정을 각각 마쳤다.

지난 2007년 대구TP에 입사했으며, 정책기획단 산업진흥팀장을 거쳐 현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대구TP는 내년 1월 2일 신임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에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이날부터 지역의 스포츠융복합산업 육성과 관련한 본격적인 기업지원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공모에는 6명이 응모했다. 부서장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 복수 후보를 추천, 임명권자인 대구TP 원장이 최종 확정했다.

한편 대구TP는 지난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를 통해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 사업자로 선정돼 같은 해 9월 전국에서 최초로 스포츠산업 거점본부를 개소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 5일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정식 직제화했다.

이상하 기자



‘닭 크리스탈 만나보세요’

28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점 소와로보스키 매장에서 모델이 ‘닭 크리스탈’ 장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 지난해 주택 보급률 102%

인구 1000명당 주택수 383호

지난해 전국 신(新) 주택보급률은 102.3%이며 재산정한 2014년 신 주택보급률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또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83호로 2010년 363.8호 대비 19.2호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은 29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해 이와 같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센서스 방식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대비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113만명, 총가구는 39만 가구(일반가구 32만가구), 주택(구분거처 미반영) 7만호가 증가했다.

인구천인당 주택수는 2000년 248.7호, 2005년 330.4호, 2010년 363.8호, 지난해 383.0호였다.

뉴시스

# 대부업체 이용자수 줄고 대출규모 늘고

1인 평균 550만 원 빌려

대부업 이용자수는 줄었지만 대출 규모는 늘어났다.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로 개인대출은 증가세는 완화됐지만 대부업자간 차입 확대로 법인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의 ‘20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14조4000억 원으로 6개월 새 1조2000억 원(8.9%) 늘었다.

거래자수는 2014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지만 대부잔액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거래자 수는 줄고 잔액은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금액은 2014년 말 448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548만 원으로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4년 12월 말 11조

2000억 원을 기록한 뒤 2015년 12월 말 13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거래자수는 지난해 말 267만9000명을 기록한 뒤 올해 상반기 263만 명으로 1.8% 감소했다.

이는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시장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고객의 대출규모를 확대한 것도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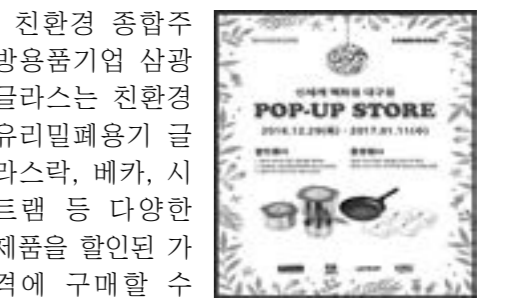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이용자 신용등급을 살펴본 결과 4-6등급 중신용자 비중이 2014년 말 21.6%에서 2015년 말 22.1%, 올해 6월 말 22.3%로 증가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은 △78.4% △77.9% △76.7%로 줄었다.

이용액 증가의 경우 대부업자 간 차입 증가의 영향이다. 법인대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2조253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2.4% 늘어난 2조2531억 원을 기록했다.

김일만 기자

## 삼광글라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팝업스토어 오픈



친환경 종합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는 친환경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 베카, 시트랩 등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삼광글라스 신세계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는 글라스락을 비롯해 베카, 시트랩, 세프토프 등 쿠퍼어 전 제품을 최대 64%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베스트셀러인 글라스락 홈세트와 핸드형, 플러스형, 소용량 등 주방 필수 아이템은 물론 캐니스터, 셰이커, 캔닝자, 텀블러 등 각종 저장용기 및 실용적인 제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이상하 기자

#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나서자

## 조달청-성신여대-수출진흥협, '공공조달 글로벌 마케팅 협력' 업무협약 체결... 상호 지원

조달청(정양호 청장)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사)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 ‘산·관·학 공공조달 글로벌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는 ‘글로벌

마케팅 센터’를 통해 해외공공조달 입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달청은 양성된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는 조달기업을 추천하게 되며, 조달기업은 전문 인력을 채용(정규직, 인턴 등)해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이날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부조달마케팅협회, 한국조달연구원 4개 기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 지원을 다짐했다.

이상하 기자

www.kepco.co.kr

Smart, Clean, Kind 한국전력공사

##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감동의 에너지

# 한국전력의 손 끝에서 시작됩니다

청초와 융합의 에너지로 새로운 미래기치를 창출하는  
Smart Energy Creator, KEPSCO

전력의 생산, 수송, 소비의 모든 과정에 친환경 ICT기술을 결합하여  
깨끗하면서도 편리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소통, 배려의 마음으로 온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희망과 감동의 에너지 세상을 그려갑니다.

# 포항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1300억 원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경영안전에 선제적인 자금지원 나서

포항시가 내년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100억 원보다 200억 원 증액된 13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내년도 중소기업

업들의 경영환경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보다 더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차보전금 예산을 2016년에 30억에서 2017년에는 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경북도(기존 3%에서 2%로 인하) 및 타 시군과의 이차보전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일반 3%(우대 4%)에서 2.5%(우대 3%)로

인하하고, 매출액에 상관없이 6억 원까지 융자추천 했던 우대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2배까지 융자추천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지원업체 수를 늘려 더 많은 기업이 자금난을 해결하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순병혁 투자기업지원과장은 "내년도도 경기부진이 우려되고 있으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부터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270-2186)에서 접수를 시작하며,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포항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훈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시청 대강홀에서 열리는 2016 포항시청 종무식에 참석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30일 오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16년도 종무식'에 참석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3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 연말 정기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시상 및 송년사를 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30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30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하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한다.

## 울릉군, 누리집 정보접근 수준 최우수기관 선정

울릉군 누리집가 행정부 주관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 '2016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접근성 및 웹 호환성 수준진단 결과 경북도 시·군 누리집 정보접근 수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항목은 정보접근성과 웹 호환성 부분으로 나눠 평가 됐는데, 정보접근성에 있어서는 50점 만점을 받았고, 웹 호환성 부분에서는 47.5점의 점수로 총 97.5점을 획득했다.

정보접근성 및 웹 호환성이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기기 및 브라우저에서 보든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대민 서비스 제공 품질 제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울릉군은 법제도 및 웹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누리집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이후 매년 진행된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재한 기자



## 울진군, '군민과 알찬 결실 거둔 한 해'

### 2016년 각종 평가결과 총 28개 부문, 고른 수상 성과 올려



울진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정부 부처와 경북도 등이 주관한 각종 평가결과 총 28개 부문, 군정 전반에 걸쳐 고른 수상 성과를 올

렸다고 밝혔다.

이는 울진군이 자치단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이 진가를 평가받은 셈이다.

특히,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과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임광원 군수가 지난 2010년 민선5기 시대를 열면서 제시한 울진군의 전략적 가치인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건설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울진군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는 평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가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등 문화관광체육 부문이 6개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브랜드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우수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평가 최우수상, 저출산 극복사업 평가대회 우수상 등 보건복

지 부문 14개 △경상북도 정부 3.0 경진대회 은상, 경상북도 민원행정평가 최우수상,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상 등 기타 정책 부문 8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수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임광원 군수가 취임 후 중점을 뒀던 문화·관광,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민선 6기 3년차에 접어든 임 군수 체제가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광원 군수는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올해 보여준 울진군의 저력은 생태문화관광도시, 평생건강도시로 도약하는 2017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삼 기자



## 칠곡군, 종무식 대신 '봉사활동' 나선다

칠곡군은 30일 종무식을 생략하고 백선거 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이 봉사활동으로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각 실·과·소와 읍·면별로 지역 곳곳을 찾아 환경 정화활동을 비롯해 어려운 가정, 장애인 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백 군수와 새마을문화과 직원은 '칠곡 사랑의 집 무료급식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배식도우미 봉사를 진행한다.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적장애우들의 재활 훈련센터인 금강직업재활시설(석적읍 소재)에서 시설 환경정화활동을 펼친다.

그 외 부서도 요양원 방문 및 주민들이 자

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연도변 환경미화 등을 통해 2016년을 뜻 깊게 마무리한다.

담뽕 공무원인 과명의 주무관(기획감사실, 36세)은 "담이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듯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새해 희망을 밝혔다.

백 군수는 "어려운 지역주민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지역 사회에도 나눔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 영덕군, 2016 경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대상 수상



지난 27일 경주에서 개최된 '같이 사는 세상, 가치로운 경북! 2016 경북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영덕군은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부문에서 대상 수상을 했다.

이 평가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참여율, 공무원 봉사활동,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등 도내 23개 시군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영덕군의 주요 추진 실적은 공무원들의 농촌일손돕기, 환경 정비활동 등 꾸준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벽화그리기와 문패 달기 등 마을단위의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자원봉사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통해 요리 교육 후 저소득층 반찬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하는 '냉장고를 부탁해' 등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오십천아카데미동호회(회장 박종화)와 순사랑봉사단 최후남 회장, 축산중학교 청소년 적십자봉사단 박종환 지도교사는 각각 유공단체와 유공자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승권 기자

## 경주시, 경북도 2016 도로정비 심사 우수기관 수상

경주시는 경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도로 정비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수상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분야에서 일궈낸 쾌거로 그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로망 정비 확충과 춘추계 배수·측구 정비, 방해물 전정, 포트홀 긴급보수, 동절기 상설설해구역 정비 등 도로정비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수현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한 기자

**Together GyeongSan**

#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

## 첨단산업도시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 미래의 꿈이 자라는 일등교육 조상의 일이 깃든 찬란한 문화,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경상시가 21세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경산시**

# 구미시, 품격높은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 국공진력의 낮은 자세로 시민 위한 시정추진 최선



구미시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품격높은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구미경제 도약'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민선 11년 시정 연속성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의 안정적 마무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단지 본격 분양과 탄소소재 등 산업다각화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박정희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아 기품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그린시티'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힘찬 비상을 준비한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공진력(鞠躬盡力)'을 신년 화두로 발표하고, 미래형 산업구조 재편과 자족형 명품도시 조성으로 시민행복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저성장세 지속과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구미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5단지 분양이 본격화될 2017년에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 및 대기업 신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이어나간다.

특히, 탄소 중심의 소재산업을 강화하고 후방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과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전자소재, 3D프린팅, 국방산업, 자동차부품 등 신성장 전략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금오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1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 해외취업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특화사업과 청년몰 조성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구미시는 대한민국 대표 '그린시티' 선정에 걸맞은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공간 재편으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금오산 일대에 '단풍나무 숲 단지'를 조성하고 낙동강 체육공원에는 '테마숲길'을 조성

하는 등 '제2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낙동강변에는 2016년 '수상레포츨 체임센터' 준공에 이어 캠핑장, 실버그린볼파크, 물놀이장 등 가족 중심의 여가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게 될 예정이며, '강바람 숲길'과 '광명천 생태하천'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북구미 및 군위소보 IC' 신설, '대구광역시권 철도망' 구축,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을 통해 도시발전속 강화 및 KTX이용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구미대교 전면 보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방범용 CCTV' 2000대 확충, '지진 대응체계'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도시안전기반 조성을 통해 내내 최초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구미시는 지난 10여년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품격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내년 '박정희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아 조국 근대화 유산을 발전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마을 운동터마공원,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신산 장원방 조성으로 지역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

5월 개관 예정인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제2회 낙동강수상불꽃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한해 독서운동 발상지인 시애틀공공도서관과 국제협력 추진과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통해 '한해 하나구미 운동'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편, '양포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도시 지정 10주년 행사 개최 등 평생교육 기반의 인문학도시로 도약을 꾀한다.

'10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되면서 2017년초에 300억 원을 돌파할 예정이며,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특성화학교 육성 등으로 명품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구미시는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구미공동체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가족행복플라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등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농촌지역은 고아음소재지 정비사업, 해평면·도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으로 거점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농업기술교육관' 건립으로 농업6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림문화관' 개관 등 농촌지역 관광자원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 생활체육공원'과 '시니어스포츠파크' 등 지역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10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로 스포츠 도시 위상을 높여 나간다.

특히,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등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경북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해외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 고령군,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국비 140억 원 확보

##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

고령군은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통해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성장촉진지역의 개발 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7일자로 승인됐다.

이에 고령군은 기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8건 5113억 원(국비 549억, 민자 4564억)

과 신규사업 2건 160억 원(국비 140억, 군비 20억)에 대해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외 신규사업으로는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정비사업(60억 원)과 다산-동고령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사업(100억 원)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간 물류유통을 원활히 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자원간 도로 등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석 기자

# 군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유치



## 경북도개발공사와 임대형 전원 주택단지 개발사업 MOU 체결

군위군은 29일, 도시민의 귀촌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경북도개발공사와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도시민과의 탁월한 접근성, 자연환경 등을 바탕으로 경북도개발공사에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제안해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경북도개발공사는 2020년까지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일원에 300억 원을 투자, 150가구 이상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존 전원주택단지와는 차별화된 임대형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도시민이 힐링·치유할 수 있는 명품단지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군위군은 팔공산터널과 상주-영천간고속도로와 더불어 중앙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아 도시민이 귀촌하기 좋은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부계면 돌담지구, 산대지구와 효령면 중구지구 전원마을이 총 1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경북의 중심 귀촌 1번지 군위로 명성을 드높일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 의성군, 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통제강화

## 축산농가 보호, 특단의 대책 강구

의성군은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철저한 차단방역대책을 강구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양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이 개통된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의성 나들목인 북의성IC와 서의성IC가 합류되는 국도5호선과 국도28호선이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인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와 단북면 정안리에 추가로 2개소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해 29일부터 24시간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 의성군에서는 중앙고속도로 IC 부근(보양면 화전리)에 지난 19일 설치된 기존의 거점소독시설을 포함, 의성군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과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차단방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의성군에서는 지난 26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 군부대와 농어촌진흥공사의 인력지원을 받아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검증과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강화해 AI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남유진 구미시장은** 30일 오후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30일 오전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2016 연말시상식'에 참석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30일 오후 한마음파크 골프클럽, ㈜화신, 육순61로부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받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30일 오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30일 군민회관에서 열리는 '2016년도 연말포상대상자 시상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30일 오후 각 부서를 둘러보며 한 해 동안 노고한 직원들을 격려한다

## 상주시, '시민행복추진단' 활동보고회 가져



제1기 상주시 시민행복추진단이 5개월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시민행복추진단'은 지난 7월 28일 발대식을 가진 후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반영되는 생활밀착형 소통기구로서 민원제보, 현장회의, 설문조사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43명으로 구성된 제1기 시민행복추진단원들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로등과 신호등 고장신고, 불법투기 쓰레기신고 등 111건의 불편사항을 제보했고 시의 해당 부서에서는 그중 35건을 처리 완료하고 다수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마을입구에 중앙선이 절선되지 않아 불법 화전선이 많음을 제보해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회에 상정해 통과된 것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시민행복추진단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이은진 기자



# 호국평화의도시 칠곡



칠곡군 CHILGOK GUN



장욱현 영주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강당에서 개최되는 '2016년도 연말 시상식'에 참석한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30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도 종무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30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6년 종무식'에 참석한다.

봉화군, 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2곳 신규 지정



봉화군은 올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최종 심사를 거쳐 2개 기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에 지정받은 봉화군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의 사회복지법인 봉화하늘과 지역사회공헌형의 봉화농업협회의소영농조합법인으로써,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7년도(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에 참여해 인건비, 판로개척, 기술개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2개 기업의 신규 지정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청송군, 새해 해맞이 행사 취소

청송군은 2017년 1월 1일 청송양수발전소 상부담에서 개최하기로 한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청송군 해맞이 행사는 새해 첫날 많은 군민들이 참석, 따뜻한 떡국에 새해 덕담을 나누며 각자의 소망과 염원을 다짐하는 자리로 많은 군민들이 기다리는 행사이지만 전국적 방역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부에서도 AI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지역축산농가 보호와 청정지역을 지켜내자는 취지로 해맞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영주시, 올해 65건 수상 상사업비 35억 원 확보

각종 공모와 평가 수상 부족한 사업비 확보... 행정서비스 우수성 입증

민선6기 3년차를 맞아 영주시가 올해 중앙부처와 경북도, 외부기관 등의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각종 평가에서 수상한 실적은 모두 65개에 달한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하는 공약 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작으로 67개 부문에서 공모사업 선정 및 각종 수상을 통해 사업비 35억 원과 시상금 33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경량합금 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200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선도지구)사업(80억 원), 관사골 새뜰마을사업(56억 원), 문화관광형시장사업(9억 원) 등이 선정돼 지역발전을 도모하

는 등 35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기관 주관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시재생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1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외에도 경북도의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대상', 새마을 운동 종합평가 '대상', 도민안전 시책 추진실적 '최우수상' 등 19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올해 영주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어느 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사실 상을 받는 것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의 한 마디가 공무원들은 더 큰 힘이 된다"며, "2017년에도 변화없이 힐링 중심 행복영주를 만들기 위해 1000여 공직자 모두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예천군, 1월 1일부터 동절기 시공중지

부설시공 방지 위해 해빙기까지 공사 중지

예천군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건설공사 중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45건(본정 42건, 읍면 등 3건)에 대해 부설시공방지 및 산업재해예방, 품질관리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를 통보하고 해빙기까지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

기온강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사나 실내에서 실시되는 공사는 발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사 중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시공 시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한중콘크리트 시공 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온시설을 완비한 후 시공해 동결 피해 예방은 물론 품질 관리에 철저히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로 인한 절도·성토 비탈면 및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과 교통안간관 설치, 통행로 정비 등을 조치하고 현장과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순찰을 수시로 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영양군, 2016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최우수 선정



영양군은 경북도에서 실시한 2016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8일 표창을 받았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 평가대회는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홍보사업의 적절성,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여

부, 사업 모니터링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의 적절성 등을 평가, 표창한다.

영양군의 2016년 주요 추진성과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자 증가, 부족한 지역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사촌 건강혈관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해 마을주민의 혈압, 혈당 관리 및 유소견자 연계로 단순 주민참여사업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꾀했으며, 그 결과 2016년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운영사업' 평가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취약계층 위주의 방문간호팀을 만성질환관리 가정방문팀으로 확대 재구성해 불편한 교통여건, 보건 의료기과의 낮은 접근성으로 평소 혈압·혈당 관리에 소홀한 마을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일대일 밀착형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2017년에도 군민 모두가 스스로의 혈관나이를 알고 적정 관리해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의 이환을 막는데 보건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전국서 100척 보트 몰려드는 안동호 배스대회

안동호 배스대회에 전국에서 100여 척의 보트가 몰려오고 있다.

현재 전국 루어 낚시터 중에 안동호 배스가 가장 힘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안동호에서 낚시하는 것이 낚시인에게는 최대의 희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올해 배스대회가 21회 개최됐으며 4000명 이상의 선수와 동호인이 안동호를 찾아 실력을 겨뤘고, 내년에도 배스대회가 19회 개최 예정이다.

우리나라 배스단체는 프로선수가 약 500명 정도 되고 35개 동호회 약 1만 명 정도가 등록해 대회에 참석하고 루어낚시 인구는 전국

적으로 2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올해 안동을 찾은 배스낚시인은 1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며 낚시인들이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5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대회는 낚이나 주말이면 요촌선착장 주진교 주변은 사람과 차량으로 항상 북비며 레저보트가 100여 척이 안동호에서 출발 대기 중인 모습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루고 있다.

안동임하호수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동호 내 순찰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전지훈련의 메카 문경으로 동지를 틀다

경북체육회 여자하키팀 선수단 경주서 문경으로 숙소 이전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하키팀 선수단이 경주에서 국토의 중심이며 글로벌 스포츠 도시 문경으로 숙소를 이전했다.

2013년 1월에 창단한 경북체육회 여자하키팀(감독 유승진)은 16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으며 그 동안 경주시에 숙소를 두고 활동해 오다 선수단 활동 근거지인 숙소를 문경시로 이전했다. 지휘봉을 맡고 있는 유승진 감독은 86년 아시안게임 하키팀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 8월까지 일본 여자하키팀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경북체육회 여자하키팀 사령탑으로 부임하면서 교통의 요지이며 전지훈

련의 메카인 문경시로 숙소를 옮겨와 국군체육부대 하키팀과 훈련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는 최근 국군체육부대와 스포츠발전업무협약을 맺어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최고의 전지훈련 메카 육성 등 스포츠로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여자 하키팀 선수단은 관내 학교의 하키팀나 무릎을 위한 재능기부에도 나서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오미자 축제기간에 하키팀 경기를 열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경북체육회 여자하키팀 선수단의 숙소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스포츠 중심도시 문경에서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Advertisement for Cheong Song featuring a bird and text: 푸른 자연을 노래하라 - 청송. 보는 자체로 탄성이 나오는 신이 빛은 선물, 주왕산. 사진 예호가들이 한뼘쯤은 목가보고 싶은 곳, 주산지. 원초적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청송입니다.









# 인생을... 생각한다

## ■ 건강소식

### ‘한 잔만 더’ 건강 적신호 부르는 연말 과로와 음주



허정욱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대구지부  
건강증진위원장

#### ■ 연말 건강 적신호?

12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마감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또 한 해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회사 동료, 친구 등과 함께 송년모임을 통해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것이다.

연말 모임과 술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니 몸도 마음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연말을 맞은 회사 업무에 늦은 시간까지 매진하다 보면 과로는 필연이 되고 만다. 매일같이 지속되는 과로와 연이어 반복되는 술자리는 건강에 적신호를 부르게 된다. 건강을 지키는 바람직한 음주습관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이 시기에 내 몸의 건강신호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주의 깊게 느껴 볼 필요가 있다.

#### ■ 과로가 부르는 질병

“야근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야근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야근을 일상근무처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야근은 필연적으로 과로로 이어지게 된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경험하게 된다. 지속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의 균형도 깨지게 마련이다. 두뇌회전도 느려지고 건망증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피로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오사카 시립대 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 과로가 생명을 유지하는 중심기관인 뇌하수체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한다. 뇌하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유즙분비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을 분비하는데 우리의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뇌하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해 자궁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고 여성 호르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 ■ 음주와 숙취

12월의 달력은 연말 각종 모임 약속으로 빼곡하다.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송년회나 망년회 모임을 가진다고 한다. 아무래도 술이 빠질 수 없다 보니 술로 인한 과로와 숙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계속되는 술자리는 우리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다.

흔히들 빈속에 술을 마셔야 기분이 더 좋다고 한다. 이런 습관은 좋지 않다. 빈속에 술을 마시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또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술 마신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숙취로 인해 고생을 하거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게 마련이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는 수면의 질도 떨어뜨린다. 과음은 수면 부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대사작용이 일어나므로 수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수면시간의 부족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과도 있다.

#### ■ 똑똑한 음주와 휴식

즐거운 모임에 분위기까지 함께 챙기는 건강한 음주 방법이 있을까?

먼저 가벼운 식사를 한 후에 술자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 평소에도 하지 못한 대화를 하며 수다를 떨며 술 마시는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마시는 술의 양은 적어지게 된다. 안주로는 고단백 음식인 고기, 생선, 두부 같은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물을 같이 마시면 좋다. 알코올은 포도당 합성을 방해해 술 마신 다음날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일시적인 저혈당 증상을 유발하지만 꿀물이나 식혜 등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숙취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콩나물국이나 있는데 알코올 대사과정을 촉진시켜 준다. 북엇국은 메티오닌이 풍부해 유해산소를 없애 주고 조갯국은 타우린이 있어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먹거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

과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휴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과로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점심 때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면 비타민D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전환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12월의 제철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에도 좋다. 사과, 한라봉, 귤, 유자, 배추, 무, 늪은 호박 등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한파도 대비하고 건강을 챙겨보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16년 12월호 발췌

## ■ 나의제언

### 겨울 화재주의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이종철

세종소방서 현장지휘대장

본격적인 겨울을 시작하는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더니 이젠 겨울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은 기온의 급강하에 따른 난로 및 보일러 사용 등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계절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 3년간 세종시 화재발생 분석 결과 겨울철인 4개월간 지난 2013년엔 194(43%), 2014년 223건(34%), 2015년 252건(35%)으로 평균 37%의 화재발생 비율을

차지할 만큼 빈번히 발생했으며 재산피해 또한 13억3500만 원이 발생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철저하기를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

아울러 전기, 유류, 가스, 화기취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물론이고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해 화재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 대구공항 이용객 250만 명 시대를 열다

대구국제공항이 개항 5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공항으로 변신했다. 올 들어 항공 수요가 크게 늘면서 9억 원의 흑자 전환과 함께 연간 이용객 250만명을 돌파하는 경사를 안은 것이다. 대구공항은 지난 2011년 무려 37억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그 폭이 증가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으나 2014년 이후 감소되면서 마침내 올해 첫 흑자를 기록했다.

1961년 4월 개항 이후 만년 적자 공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올해 들어 흑자 공항으로 전환된데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돼 있다. 저유가와 최근 본격화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이 잇따라 취항한 것이 대구공항 흑자전환의 기폭제가 됐다. 또 대구공항 취항 항공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야간 운항 통제 시간 단축을 통한 항공 공급력 확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공항 지정 등 필수적인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KTX 개통되면서 2007년 대구-김포노선이 폐지된 후 초래된 경영위기를 극복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2009년이 되자 마침내 연간 대구공항 이용객이 102만 명까지 떨어지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으나 사즉생(死即生)의 결기로 정면 승부

에 나섰다. 국제공항으로 생존하기 위한 대구시의 집념과 노력의 결과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2012년 국제선 신규노선 취항 항공사에 손실분의 일정액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효과를 냈다. 또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도 신규 취항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와 정류료, 조영료 등 시설사용료를 50-100% 감면하는 등 대구공항의 사투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결정적인 성과는 2014년의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4개사가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3개 노선에 주 14편에 불과했던 국제선이 일본과 동남아 등 12개 노선에 주 168편으로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였다. 만성 적자의 늪에서 헤어지지 못했던 대구국제공항이 드디어 적자의 멍에를 끊고 고공 행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국제공항의 전망은 밝다. 대구공항의 흑자폭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구국제공항을 최대한 활성화해 김해공항을 능가하는 거점공항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이전되는 대구통합공항에는 보다 넓은 부지 확보를 통해서 확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LG 탈퇴 전경련, 본격적 개혁 서둘러라

LG의 탈퇴를 시작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실상 해체수순에 들어갔다. LG그룹을 시작으로 삼성 등 주요 기업의 탈퇴가 예고되고, 공공기관 및 금융사가 동참하고 있는 탈퇴 러시는 큰 충격이다. 즉 KT가 지난 10일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전달했고,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도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전경련은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쇄신을 확정짓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의 목을 쥐고 있는 회원사들의 반응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15일 30대 그룹을 상대로 마련한 간담회가 참석률 저조를 이유로 흐지부지 끝난 장면은 전경련의 해체를 연상케 하는 단적인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구분부 LG그룹 회장이 제시했듯이 전경련을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싱크탱크로 운영하고 재계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70만 명에 이르는 거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다. 많아야 600여 개 대기업 회사를 거느린 전경련으로선 변신 불가능한 형태다. 해체에 대한 우회적 발언이었던 셈이다.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 계획, NATO 중심의 서방 동맹 정책 등이 헤리

티지 재단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약 200여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미국 이익 방어와 복지 축소, 기업 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논리를 쏟아내며 제몫을 다하고 있다.

전경련이 헤리티지 재단 같은 연구기관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재정 투명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다. 실제 헤리티지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돈 대부분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매년 들어오는 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더 많은 기부금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수입 대부분을 기업, 특히 몇몇 소수 그룹의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돈이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전경련을 위기에 몰아넣은 미르-K스포츠 재단도 결국 투명성의 부재라는 빈틈이 만든 결과물이다.

전경련이 경제단체로 존립할 명분이 없다면 발전적 해체 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민간연구소로 전환해야 한다. 대기업 연쇄 탈퇴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개혁을 늦추서는 안 된다. 시기를 놓치면 공중 분해될 수도 있음을 전경련은 명심해야 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nonghyup.com

##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때때로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기를 기쁨으로 만들어내듯, 농업,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NH 농협

#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성공적 마무리



## 경북의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로 경북관광 한 단계 도약

경북도는 2016년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통해 경북의 관광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대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등 경북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킨 해로 평가했다.

올해 10월까지 경북도를 방문한 중화권 관광객은 27만 5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도는 2014년 12월 만리장성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조형 경북관광 △소통하는 경북관광 △편리한 경북관광 △상생하는 대구·경북이라는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2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일정에 따라 세밀하게 준비한 것이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먼저, 지난 1월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및 학계 교수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했으며, 2월 26일 서울에서 추귀홍 주한 중국 대사, 홍보대사 이상윤과 북경TV, 강소TV 등 중국 언론 1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또한, 4월에는 상해 세기광장에서 '대구·경북 방문의 해' 붐업(Boom-Up)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중문화관광축제 개최, 안휘성과의 관광교류 협약(MOU) 체결과 함께 대구시와의

공동 홍보설명회를 열고 중국 현지에서의 경북 알리기에 주력했다.

경북도는 남경, 시안, 창사 등의 중국 현지 여행사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일즈 풀과 홍보설명회 열고, 언론사·기업체 및 학교 관계자를 초청해 팸 투어를 실시하는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경북의 관광이미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한류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의 배경이 된 울진을 배경으로 한 홍보 영상 등을 중국 현지 TV와 SNS를 통해 송출했다.

또한, 숙박업체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록·관

리 지원, 온라인 할인쿠폰 발행 등 온라인 홍보 강화로 경북 웨이보 팔로워 42만 명, 블로그 방문자 78만 명을 돌파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경북도의 이러한 노력은 곳곳에서 그 성과로 나타났다.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FIT)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차별화한 맞춤형 관광 상품은 그대로 주요했다.

특히, 특수목적관광(SIT) 상품은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다. △산동성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주축이 된 '산동성 농촌·새마을 벤치마킹단' △서라벌 한·중 청소년 축구교류 △한·중 청소년 문화관광교류 △침성대 야간상품 △한류스타 황철형 관광상품 △배우 이상윤 초청 김장체험 상품 △K-Pop 콘서트 △해파랑길 트레킹 △LeRoy 그룹 인센티브 관광단 유

치 등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성과는 7월 사드(THAAD) 배치 발표와 9.12 경주 지진, 한한령(限韓令, 중국내 한류 콘텐츠 제한)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기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과 유치 마케팅을 통해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높이 평가된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중화권 및 동남아로의 관광마케팅 범위 확대 △개발여행객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맞춰 '개별관광객(FIT) 유치 전략 강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선비문화권과 해돋이 역사기행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추진' △유교·가야·신라 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생태자원을 결합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종 고시

향후 10년간 110개 지역개발사업 5조5908억 원 투자 계획 신규사업 국토부 국비 2159억 원 확보...쾌거, 최초 계획 수립



경북도는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최종 고시된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립했다.

또한 2014년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5종의 지역개발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중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를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했다.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는 향후 10년 살림살이 확보를 위해 타 도보다 발빠르게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을 최초로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했다.

최초로 승인된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

발계획은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영주·영천·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반영한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경북도'라는 비전으로 6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총 110개 5조5908억 원을 투자할 지역개발사업을 확정했다.

도는 계획의 비전 실현과 지역 간 연계발전을 위해 △자연·문화 백두대간발전권 △지역 자원기반 내생(内生)발전권 △해양·생태·에너지 융·복합발전권으로 구성된 3개의 공간권역에서 각 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내 16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성장기반 및 특화산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에 집중한다.

특히,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는 초기연도인 올해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했다. 내년에는 1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김영구 기자

## 경북도, 내년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산 80억 확보

### 국가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쾌적한 친수공간 유지 관리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하천 6개소(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감천, 반변천, 내성천)에 대한

재해예방과 쾌적한 친수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국가하천 친수 공간 내 자전거도로(95km), 산책로(133km), 수변생태공원(37km) 등의 하천시설물 보호를 위한 제방정비(제초·벌목), 배수시설 점검·정비 등 치수시설을 관리해 재해를 사전 예방한다.

국민 소득증대와 여가문화 확산으로 수변공간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휴식 공간으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은진 기자

### 경북도, 2017년 1월 1일부터 도로공사장 동절기 공사중지

경북도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폭설 등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동절기 도로공사의 철저한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동해관련 공종에 대

해 2017년 1월 1일자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동절기 현장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공사 등 동해가 우려되는 공종은 시공을 전면 중지했고, 공종상 부득이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승인 후 감리(감독) 임회하여 시행토록 조치했다.

김영구 기자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실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러분은 이미 지구지킴이로 앞장서고 계십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우리의 무관심속에, 지금도 지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탄소배출이며 탄소의 85%가 에너지 사용중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제품을 애용하는 일 작지만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길입니다.**

2020년까지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대비 30%

**배출 탄소 국민 1인당 11.52톤!**  
순간이 멈추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배양한 양파를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신산란을 위한 시중에 부실한 커피는 하루 1인당 하루 약 200mAh, 일상생활 2.2kWh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차, 배를 운전이 멈추면 5~10분 정도를 쉬어도 배터리는 10%이상 양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프로그램 **KVER**  
온실가스를 감축 할 때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유도

대학생이 참여하는 **그린누리 희망 프로젝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교육과 온실가스 감축 자원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국민 탄소줄이기 **명예인 탄소중립**  
개인, 단체 누구나 참여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과 습관을 정착시키는 캠페인